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자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태오 5,7)



포콜라레
천주교마리아사업회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를 뽑으신 후 산에서 내려오시며 한 마을로 가셨어요. 그곳에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모든 이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고, 심지어 원수들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특히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부탁하시면서,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를 따지지 않고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호주에 사는 재스민의 이야기예요.

매일 학교에서 용서하는 경험을 해요. 내 짝 로렌스는 늘 나를 괴롭히거든요.



한 번은 내 필통을 훔쳐 갔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나 자신과 한참 실랑이를 했어요. 무척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고 로렌스를 용서했어요.



어느 날, 담임선생님 수녀님께서 재스민의 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은 천사 같은 딸을 두셨어요. 로렌스에게도 늘 참을성을 가지고 잘해주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재스민은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어요!”